

한국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

Evaluation of Infant / Toddler Programs
in Korean Day Care Centers

이 순 형*

Yi, Soon Hyung

이 옥 경**

Lee, Ok K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of infant/toddler programs in 200 day care centers in Korea. The quality of infant/toddler programs was evaluated by observation and interview,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the programs was moder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programs by type of day care center, i. e. the quality of infant/toddler programs in national and private day care centers was higher than in family day care. Future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quality day care.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1995년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실시 이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종사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사업의 일차 목적인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에 보육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발달적 보육, 질적 보육의 개념(educare)으로 접근되고 있다(이기숙, 1995). 보육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보육경험의 유무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주로 연구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결과들이 제시(Howes, 1992; Scarr, Eisenberg & Deater-Deckard, 1994)되면서 보육경험 자체보다는 보육시설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보육시설의 구조적, 물리적 요인과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들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적인 요인들로 대별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집단규모,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교육 및 훈련 정도 등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권혜진, 1996; 이영·김미령, 1990; Belsky, 1988). 과정적인 요인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나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포함하며, 특히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lsky, 1992; Clarke-Stewart, 1992; Goelman & Pence, 1987; Phillips & Howes, 1987;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시설의 질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구조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과정 요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육에 대한 평가와 논의들은 보육정책, 보육교사, 보육재정 등의 측면에 치중되어 왔으며 보육의 과정 측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서, 보육사업의 균형잡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과정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에 대한 실제 평가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서 지표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육시설의 질을 구조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정부기관에 의한 법적인 강제 규정이 있으므로 보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과 그에 관련된 규칙들로 구조적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질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다. 그에 비해 보육 환경의 포괄적인 과정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동 발달의 결과를 더 많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가 수행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개 표준화된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보육

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을 관찰, 측정하고 종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되는데, 과정적 요소 평가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만 측정자가 될 수 있어 평가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평가의 부담이 크더라도 관찰에 입각한 과정 평가의 중요성은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영, 유아기 어린 시기에 시설에서 경험한 보육활동의 질은 성장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정 평가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아들의 경우, 이 시기가 양육자와 애착 형성을 비롯한 정서발달과 신체적, 인지적 성장·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 인간발달의 기초가 놓여지는 민감한 시기라는 발달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일상 경험을 구성하는 보육시설의 과정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영아보육의 질을 논의하고 평가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측면은 보육시설의 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이 영아의 발달적 요구에 토대를 두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이순형, 1999a). 영아는 성인의 단순한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능동적 학습자이다. 영아는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신체적 안전 요구가 우선된다. 영아는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배변을 원할 때 할 수 있음으로써 신체적 안전감과 통제감을 느끼기를 원한다. 일단 신체적 안전 요구가 충족되면 심리적 안정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 사회의 소속인으로서 애정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의 획득을 원하는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후에는 사회적 관

계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래간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외에도 영아에게는 지적 탐구욕이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한다. 부가하여 영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 창조의 요구는 동작, 미술, 음악 등의 표현활동으로 표출된다.

영아의 발달적 요구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활동이 구성되어져야 하며,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발달적 요구들이 보육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는지에 근거하게 된다. 신체적 안전의 요구는 청결과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 유지와 관련된다. 특히 생존과 영역 유지를 위한 섭식, 취침, 배변을 통해서 유기체로서 신체적 신진대사의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심리적 안전 요구는 영아가 부모와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의 인정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긍정적, 애정적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심리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환경 탐색 요구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 요구가 충족되면 자신이 속한 세계를 탐험하고 탐색하려는 것을 말하며, 실내와 실외에서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의 확장 요구는 영아의 관심이 부모에게서 벗어나 교사와 또래에게로 확장되는 것이다. 영아의 지적 탐구 요구는 사물의 속성과 모양, 기능에 대한 관심이며 수, 언어 활동 등을 통해 충족된다. 영아의 창조적 요구는 개인활동이나 집단활동을 통해 신체, 언어, 미술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충족된다.

이 기본적 발달적 요구들에 대한 고려는 대

부분의 보육프로그램의 구성 기준과 평가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토대를 둔다는 것은 아동을 보육활동의 주체로 간주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아동 중심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육의 질을 가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고, 그 평가 기준이 아동의 발달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평가 가능한가와 생태문화적으로 타당한가가 고려되어야 한다(이순형, 1999b). 이론적 타당성은 아동 발달의 요구성(要求性)과 적기성(適期性)에 기초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아기가 출생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안전 요구, 성장 요구, 발달 요구들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가능성은 평가 기준이 실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생태문화적 타당성은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의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서구의 척도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기초로 새 평가 척도를 개발하더라도 한국인의 주거문화, 양육가치관,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보육활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활용되어 온 국내 척도들은 주로 유아교육기관의 평가준거인데 주로 유치원에 대한 평가 척도(국립교육평가원, 1994; 이영석, 1989; 이은혜·이기숙, 1996; 한국교육개발원, 1987)

이고, 그중에 보육시설 평가체계 개발은 두 편(이순형·이강이, 1992;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영아보육에 대한 평가척도는 국내에서는 개발되거나 활용된 사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영아보육환경 평가도구로는 우선 미국 NAEYC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 기준' Accredit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Early Childhood Programs)을 들 수 있다. 이 인준체계는 0세부터 8세까지의 발달에 적합한 아동 보육 및 교육환경을 측정하는 10개의 구성요소에 84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영아용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Harms, Clifford와 Cryer가 개발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 '가정 보육 평정척도(Family Day Care Rating Scale: FDCRS)'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ITERS는 0~30개월까지의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7개 하위 영역에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은강과 이완정(1997)에 의해서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FDCRS는 5명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6개 하위 영역에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선영(1992), 한미라(1995)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Abbott-Shim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는 운영관리,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숙현(1994)에 의해 표준화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척도들은 대부분 유아기 아동의 환경 평

가도구로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영아기 아동의 보육환경을 평가하도록 사용될 수 없는 도구이다. 대부분 척도의 문항들이 피조사자 응답식으로 구성되는데 문항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한 문장들로 진술됨으로써(예: 보육시설 주변 환경이 아동들에게 교육적이다, 교육내용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다 등) 객관적인 평가 척도로서 활용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유아기의 발달관점과는 구분되는 영아기 보육 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행 평가 연구들의 한계를 통해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실제 평가에 있어서 교사나 원장이 평가하는 설문지 방식이 아닌 평가자의 직접 관찰에 의한 평가가 시행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특정 도시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그리고 각 시도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시설을 적절히 안배한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 관찰조사 방법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에 비해 쉽게 평가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을 조사하는 데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이 연구는 전국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기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측면들을 평가자의 직접 관찰에 의해 평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장차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연구 목적에서 첫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평가하고,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평가 수준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구체화했다.

1. 영아기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 1-1.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 1-2. 영양 영역에서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 1-3. 학습환경 영역에서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 1-4.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영역에서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 1-5. 개별화 영역에서 보육프로그램의 실태는 어떠한가?
2.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영아기 보육프로그램의 평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1.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의 건강과 안전 영역의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2.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의 영양 영역의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3.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의 학습환경 영역의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4.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의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영역의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5.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의 개별화 영역의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소재지와 설립유형별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전국 보육시설 명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200개 시설을 지역·유형별로 할당 표집하였다.¹⁾

조사 표본의 선정시 보육시설의 소재지와 함께 설립유형도 고려되었다.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75, 69, 56개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는 민간개인시설과 민간법인시설이 포함되었다.

2.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보육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보육환경과 운영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구성 원칙을 고려하였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안전과 위생 원칙, 아동의 지적 발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적정 자극 원칙, 발달 수준에 적절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원칙, 교사와 아동간의 관심과 유인적 상호작용 원칙, 개별 아동의 개성과 요구를 배려하는 개별화 원칙을 말한다(이순형, 1995). 또한, 아

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정 지표의 중요성과, 보육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였고,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는지에 유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별되는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Abbott-Shimm과 Sibley(1987)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의 영아기편을 채택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찰가능한 행동이나 상황을 판단 근거로 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PECP는 보육시설의 보육실 관찰을 위한 검사지(구조화된 관찰 지침)로서, 연령범주별(영아기, 유아기, 학동기)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에서 질적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자는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문항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소재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서 각각 104, 66, 30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 대도시 표본은 서울에서, 중소도시 표본과 농촌 표본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모든 구(區)를 대상으로 고르게 표집하였으며, 경기도는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의 7개 중소도시와 평택시·용인시 인근과 안성군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중소도시 표본을, 원주시 인근과 횡성군에서 농촌 표본을 선정하였다. 충청도는 천안시에서 중소도시 표본을, 예산군, 홍성군, 아산시·천안시 인근에서 농촌 표본을 선정하였다. 경상도는 중소도시 표본을 마산과 창원에서, 농촌 표본을 김해시 인근에서 선정하였다. 전라도는 중소도시 표본을 전주에서, 농촌 표본을 김제시·정읍시·남원시 인근에서 선정하였다. 평역시와 충북, 경북, 전남지역이 제외된 것은 표본선정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평가는 평가척도의 기본요소(component)의 하위영역(dimension)으로 세분되며, 각 하위영역 내에는 프로그램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 가치와 기대를 나타낸 평가기준(standard)이 진술되고, 각 준거에 포함된 평가기준(criteria)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 과정, 가치, 기대 등 세부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영아기 프로그램은 1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우리 보육 현황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강숙현(1994)이 번역해 표준화한 척도를 가지고, 아동학 교수 3인과 사회복지학 및 아동학 전공자 2인 등 5인이 각각의 문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우리 보육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전원합의에 의해 삭제하거나 수정, 통합하였다. 또한 우리 보육 실정에서 의미있는 질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5인이 전원 합의한 문항을 새로 포함시켰다. 1차 수정을 거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예비관찰을 실시한 후 재수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가자에 따라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평가지침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보육시설 유형과의 비교하기 위해 별도의 척도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척도 내용 중에서 가정보

육시설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척도의 총 문항수는 62문항이었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점수는 각 문항에 '예'로 평가되면 1점, '아니오'로 평가되면 0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보육시설은 0점에서 62점까지의 총점을 얻게 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Cronbach의 α 값이 .74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 평가 절차

보육시설의 평가는 조사대상 시설에 각 1인의 평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찰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평가자는 아동학 및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로 선정하였고, 이들에게 설문지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전체적인 평가 절차를 숙지시키는 평가자 훈련을 1, 2차에 걸쳐 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²⁾.

본 조사는 1998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보육시설 관찰은 일상적인 교실 환경과 상호작용의 실제적인 상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평일의 일상적인 일과활동 중, 주로 오전에 실시되었다. 평가방법³⁾은 한 시설당 영아반을 한 학급씩 선정하여 각각 1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평가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

- 2) 평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자들이 모든 문항에 대한 평가 능력 훈련을 거친 후 10곳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2명이 한 조가 되어 독립적으로 관찰평가를 실시하여 나타난 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자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는 .79~.88정도로 나타났다. 평가자 간에 평정 결과가 불일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친 후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평정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재훈련을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3) 평가는 한 학급당 15분씩 돌아가며 여러 학급을 관찰하고 다시 처음 학급으로 돌아가 관찰 순서를 되풀이하는 회전식 관찰방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급을 순환관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1개의 시설당 1개의 학급을 선정하고 1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따라서 원래 측정방법을 통하여 1개의 학급을 일정시간 동안만 계속적으로 관찰할 때 나타나기 쉬운 측면들을 파악하고자 한 원래의 평가척도 구성자의 의도가 다소 퇴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관찰이 일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전 중에 실시되었지만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일부 관찰시간대에 차이가 있었던 점은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육활동을 1시간씩 관찰하고, 시설의 각종 기록 및 문서(투약의뢰서, 보육일지, 교육계획안, 개별 발달평가기록, 부모면담결과기록 등)를 점검하고, 교사 및 시설장에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는 등 자료 수집에 다각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영아기 프로그램의 전체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치를 살펴보았으며,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영역과 준거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고, 설립유형에 따른 개별 문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1〉 영아기 보육프로그램 평가 척도의 내용

구분	하위영역	준 거	문항수
영아기 프로그램	건강과 안전	실내 보육실의 안전성 / 교재·교구, 시설·설비의 안전성 / 보육실의 위생 유지 / 영아의 건강보호 및 증진 /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 / 영아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20
	영 양	개별적 요구의 급식 제공 / 편안한 분위기 / 교사-부모간의 정보 교환	6
	학습환경	다양한 놀이 활동 영역 / 학습경험의 다양성	8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작용 /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 반응적인 교사 / 적극적인 활동 참여	20
	개 별 화	체계적인 평가의 계획과 실행 /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 교사·부모·지역사회의 상호협력	8
계			62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프로그램의 실태

영아기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아기 프로그램에 대해 하위영역과 준거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영아기 프로그램 전체는 평균 44.15점으로 총점 62점에서 71%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다. 건강과 안전 영역은 평균 14.06점으로 총 20점 중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

영역은 평균 5.14점으로 총 6점 중 86%, 학습환경 영역은 평균 5.00점으로 총 8점 중 63%,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영역은 평균 15.64점으로 총 20점 중 78%, 개별화 영역은 평균 4.56점으로 총 8점 중 57% 수준이었다. 따라서 하위영역별 영아기 프로그램 수준은 57~86% 정도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 개별화 영역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양과 교사-영아간의 상호작

〈표 2〉 영아기 프로그램의 일반적 경향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중앙값/최대치)	준 거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치
건강과 안전 (14.06/4.18/15.00/20.00)	실내 보육실의 안전성	3.10	1.01	3.00	4.00
	교재/교구, 시설/설비의 안전성	1.79	.55	2.00	2.00
	보육실의 위생 유지	3.87	1.56	4.00	6.00
	영아의 건강보호 및 증진	2.80	1.20	3.00	4.00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	1.29	.74	1.00	2.00
	영아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1.23	.79	1.00	2.00
영양 (5.14/1.53/6.00/6.00)	개별적 요구의 급식 제공	2.52	.87	3.00	3.00
	편안한 분위기	1.78	.53	2.00	2.00
	교사-부모간의 정보 교환	.91	.28	1.00	1.00
학습환경 (5.00/2.20/5.00/8.00)	다양한 놀이 활동 영역	1.35	.78	2.00	2.00
	학습 경험의 다양성	3.65	1.77	4.00	6.00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15.64/4.68/17.00/20.00)	긍정적 상호작용	5.51	1.87	6.00	7.00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3.19	1.19	4.00	4.00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2.11	.93	2.00	3.00
	반응적인 교사	3.06	1.10	3.00	4.00
	적극적인 활동 참여	1.78	.56	2.00	2.00
개별화 (4.56/2.43/5.00/8.00)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45	.50	.00	1.00
	체계적인 평가의 계획과 실행	1.91	1.03	2.00	3.00
	교사·부모·지역 사회의 상호협력	2.23	1.43	2.00	4.00

(비고 : 영아기 프로그램 전체의 평균 44.15, 표준편차 12.81, 중앙값 46.00, 최대치 61.00)

용 영역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각 문항에 대해서 점수의 75%(3/4)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를 질이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그 이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여 논의하였다.

1) 건강과 안전

이 영역에서 영아의 기본적 보호에 속하는 낮잠자기 영역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육실에 조립식 난간이 달린 영아용 침대가 있거나, 별도의 침실이 있는 정도는 48%로서 절반에도 이르지 않고 있다. 보육실내에 수도 설비와 조리

영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39%, 음식을 준비하는 영역 가까이에 냉장고가 있는 경우는 68%에 그치고 있다.

영아용 놀이감을 2주 1회 이상 세척하는 경우가 51%, 영아의 신체 청결 유지를 위해서 온수가 사철 제공되는 경우는 61% 정도이다. 기저귀 갈기 영역(또는 주로 기저귀 가는 곳)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는 영역과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62%, 기저귀 갈기 영역에는 물수건, 기저귀, 기저귀 팬티나 옷가지 등의 위생·편리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침구가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탁을 자주 하

지 않는 경우가 1/3이상이었다.

아동의 질병 관리를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거나 혹은 결석을 통고해야 될 경우 질병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가 57%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바깥날씨가 가능한 한 영아에게 바깥놀이 활동 기회를 주 2회 이상 제공하는 비율도 67%로 나타났다.

한편, 75% 이상의 점수를 얻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보육실 내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위험한 놀이감이 없으며(84%), 실내 설비의 80% 이상이 영아의 신체크기에 적합하고(93%), 각종 설비가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고(89%), 위험한 물건들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되어 있으며(91%), 안전한 놀이감이 제공되고(89%), 교사가 음식 준비 전이나 기저귀 갈아준 후 반드시 손을 씻고(76%),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가 준비되어 있거나 수건이 깨끗하며(85%), 보육실이나 기저귀 갈기 영역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경우(90%) 등이다.

2) 영양

이 영역에서는 영아 개별 요구에 따른 급식 제공, 편안한 분위기, 부모와 시설간의 정보 교환의 모든 문항에서 75% 이상의 실시율을 보여, 모든 시설이 영아의 영양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유용품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82%),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이름을 표기하여 냉장하며(86%), 영아의 요구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유하며(88%), 교사가 영아를 안고 수유하고(88%), 교사가 식사 시간 동안 영아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도록 도우며(92%), 교사가 영아의 영양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91%)가 그러하였다.

3) 학습환경

이 영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기어다니는 영아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의 마루 영역과, 소근육 활동과 대근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각각 27%, 37%였다. 현재 시설에서 영아를 위한 대근육 활동을 위한 교구, 극화놀이 교재·교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악기와 오디오 기기가 구비되어 있는 정도는 약 60%로서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표현활동(물·모래놀이, 밀가루 반죽이나 점토를 이용한 만들기, 스폰지 그림 그리기 등)을 매주 계획·실행되고 있는 정도는 약 60%에 그치고 있다. 한편, 75% 이상의 점수를 얻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문항으로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조작적 교구들이 구비되어 있고(76%),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청각 매체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82%) 등 두 문항에 그쳤다.

4)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영역에서 75% 이하로 평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영아와 함께 대근육 활동에 직접 참여(65%)하고, 영아의 발성이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확장시켜 반응(73%)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다른 영아의 놀이감을 뺏고 활동을 방해하는 영아에게는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마련해 주어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경우(68%), 교사와 영아, 영아와 영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협동적인 활동이 자주 마련되는 경우(58%), 위험한 상황에서만 교사가 영아에게 '안돼', '하지마' 등의 말을 사용하는 경우(58%)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교사가 영아와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을 자주 하고(82%), 긍정적 태도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며(84%), 웃음, 미소짓기 등의 표현을 자주 하고(79%), 영아와 함께 마룻바닥에 앉아서 활동하며(82%), 영아와 개별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80%), 영아가 주변을 탐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79%)는 75% 이상의 점수를 얻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교사가 영아에게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79%), 적당한 소리로 이야기하며(89%), 자발적인 발성모방을 격려하고(77%),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며(87%), 영아의 신체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81%), 영아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77%), 영아를 때리거나 잡아당기지 않으며(92%), 영아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작용하고(92%), 능동적으로 놀이공간을 탐색하는 경우(87%)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5) 개별화

개별화 영역에서는 모든 문항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신체, 인지, 사회성, 언어, 정서 발달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발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년에 1회 이상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45%에 그쳐 아동발달에 대한 개별 발달평가가 새롭게 인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아에게는 개별 보육이 강조되는데, 인공수유를 위한 고무젖꼭지, 담요, 형겅으로 된 동물인형, 기저귀, 옷가

지 등은 개인별로 마련하는 경우가 69%이며, 개별로 마련된 모든 물품에 영아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가 71%, 영아의 수유나 배변, 잠자기 그리고 특별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하루일과를 개인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53%로 나타나 보육의 개별화는 50%-7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교사·부모·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 서는 효율적인 학습활동 계획 및 운영을 위해서 교사와 부모, 보조교사나 지역사회 인사들은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74%이며, 교사가 부모들에게 일일교사나 교사보조자, 견학, 교재/교구 제작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28%, 아동발달 및 행동에 대한 평가 후에 부모와의 개별 면담이 최소한 1년에 1-2회 이상 실시되는 경우가 74%, 부모와의 개별면담에서 얻어진 아동의 발달적 상황과 학습경험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해 두고 이를 새로운 학습활동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경우가 70%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아기 프로그램 평가 결과

영아기 프로그램에서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47.40점과 44.91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38.95점보다

<표 3>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아기 프로그램 평가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F 값
영아기 프로그램	국공립	75	47.40(9.17)	a	7.72***
	민간	69	44.91(13.12)	a	
	가정	56	38.95(14.95)	b	

*** p<.001

높았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1)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에서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4.79점, 민간보육시설이 14.10점, 가정보육시설이 13.04점의 순이었다.

각 준거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실내 보육실의 안전성, 교재·교구, 시설·설비의 안전성, 보육실의 위생 유지, 영아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에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1.43점과 1.32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1.05점

보다 높았다. 이 준거에서는 영아 개별 침구를 마련하여 사용한다는 문항만이 유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이 76.0%, 민간보육시설이 73.9%, 가정보육시설이 48.2%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영아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에서도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1.56점과 1.38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59보다 높았다. 문항별로는 질병 상태를 기록하는 일정 양식을 비치하여 활용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3.3%, 민간보육시설이 63.8%, 가정보육시설이 23.2%로 차이를 보였다. 날씨가 가능한 한 영아에게 바깥놀이 기회를 주 2회 이상 준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82.7%, 민간보육시설이 73.9%, 가정보육시설이 35.7%로 차이를 보였다.

<표 4>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준거에 대한 평가

준 거	유 형	빈 도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실내 보육실의 안전성	국공립	75	3.25(.77)	a	1.50
	민 간	69	3.01(1.05)	a	
	가 정	56	2.98(1.21)	a	
교재·교구, 시설·설비의 안전성	국공립	75	1.97(.45)	a	1.58
	민 간	69	1.78(.57)	a	
	가 정	56	1.70(.63)	a	
보육실의 위생유지	국공립	75	3.84(1.42)	a	.28
	민 간	69	3.80(1.53)	a	
	가 정	56	4.00(1.78)	a	
영아의 건강보호 및 증진	국공립	75	2.84(1.07)	a	.83
	민 간	69	2.81(1.23)	a	
	가 정	56	2.71(1.36)	a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	국공립	75	1.43(.70)	a	4.33**
	민 간	69	1.32(.68)	a	
	가 정	56	1.05(.81)	b	
영아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국공립	75	1.56(.66)	a	34.85***
	민 간	69	1.38(.71)	a	
	가 정	56	.59(.68)	b	

* p<.05, ** p<.01, *** p<.001

종합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과 영아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영역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이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양

영양에서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41점, 민간보육시설이 5.08점, 가정보육시설이 4.86점의 순이었다.

각 준거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첫째, 개별적 요구의 급식 제공,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사-부모간의 정보 교환에서는 유형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평균 .99점으로 민간보육시설의 .89점, 가정보육시설의 .84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교사와 부모 사이에 영아의 영양에 관련된 정보가 가장 잘 교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습환경

학습환경에서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6>).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5.60점과 5.14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4.00점보다 높아서, 영아의 학습을 위한 적절한 공간 및 교재·교구 확보와 활동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이 가장 우수하고, 민간보육시설도 이에 못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5>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양의 준거에 대한 평가

준 거	유 형	빈 도	평 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개별적 요구의 급식 제공	국공립	74	2.61(.74)	a	2.27
	민 간	67	2.60(.84)	a	
	가 정	57	2.32(1.02)	a	
편안한 분위기	국공립	75	1.88(.33)	a	2.33
	민 간	69	1.72(.59)	a	
	가 정	57	1.70(.65)	a	
교사 - 부모간의 정보교환	국공립	73	.99(.12)	a	4.58*
	민 간	65	.89(.31)	b	
	가 정	57	.84(.37)	b	

* p<.05

<표 6>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학습환경 평가

하위영역	유 형	빈 도	평 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학습환경	국공립	75	5.60(1.95)	a	9.42***
	민 간	69	5.14(2.16)	a	
	가 정	56	4.00(2.27)	b	

*** p<.001

각 준거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첫째, 다양한 놀이 활동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경험의 다양성에서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4.16점과 3.81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2.75점보다 높았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영아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교사 도움없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조작적 도구들이 3종 이상 구비되어 있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86.7%, 민간보육시설이 79.7%, 가정보육시설이 57.1%로 차이를 보였다. 영아의 극화놀이 교재·교구들이 3종 이상 구비되어 있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49.3%, 민간보육시설이 39.1%, 가정보육시설이 16.1%로 차이를 보였다. 다양한 악기들이 3종 이상 구비되어 있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9.5%, 민간보육시설이 60.9%, 가정보육시설이 37.5%로 차이를 보였다. 물·모래놀이, 밀가루 반죽이나 점토 만들기, 스폰지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을 매주 계획, 실행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69.3%, 민간보육시설이 68.1%, 가정보육시설이 30.9%로 차이를 보였다.

4)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교사-영아간 상호작용에서는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평균 점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6.59점, 민간보육시설이 15.59점, 가정보육시설이 14.59점이었다.

각 준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첫째, 긍정적 상호작용,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반응적인 교사 준거에서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적극적인 활동 참여에서만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평균 1.89점, 민간보육시설의 1.78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1.63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문항별로 보면, 영아들이 또래나 교사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한다는 응답이 국공립보육시설 95.9%, 민간보육시설이 92.8%, 가정보육시설이 84.2%로 나타나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개별화

개별화에서는 <표 9>와 같이 보육시설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점수가 각각 5.50점과 5.00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평균 점수 2.77점보다

<표 7>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학습환경의 준거에 대한 평가

준 거	유 형	빈 도	평 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다양한 놀이활동 영역	국공립	75	1.44(.70)	a	.99
	민 간	69	1.33(.82)	a	
	가 정	56	1.25(.81)	a	
학습경험의 다양성	국공립	75	4.16(1.52)	a	11.79****
	민 간	69	3.81(1.78)	a	
	가 정	56	2.75(1.76)	b	

* p<.05, ** p<.01, *** p<.001

〈표 8〉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의 준거에 대한 평가

준 거	유 형	빈 도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긍정적 상호작용	국공립	73	5.86(1.41)	a	2.95
	민 간	69	5.49(1.89)	a	
	가 정	57	5.07(2.25)	a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국공립	73	3.37(1.01)	a	1.72
	민 간	69	3.16(1.18)	a	
	가 정	57	2.98(1.40)	a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국공립	73	2.18(.89)	a	.93
	민 간	69	2.14(.93)	a	
	가 정	57	2.96(1.00)	a	
반응적인 교사	국공립	73	3.23(.94)	a	1.48
	민 간	69	2.99(1.10)	a	
	가 정	57	2.93(1.25)	a	
적극적인 활동 참여	국공립	73	1.89(.49)	a	3.56*
	민 간	69	1.78(.50)	a	
	가 정	57	1.63(.37)	b	

* p <.05

〈표 9〉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개별화 평가

	유 형	빈 도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개별화	국공립	75	5.51(2.06)	a	28.26***
	민 간	69	5.00(2.26)	a	
	가 정	57	2.77(2.16)	b	

*** p<.001

높았다.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가정보육시설의 개별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향은 다른 하위영역보다는 개별화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준거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첫째, 체계적 평가의 계획과 실행에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평균 .61점과 .50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15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둘째,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에서도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이 평균 2.21점과 2.04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1.33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인공수유를 위한 젓꼭지, 담요, 동물인형, 기저귀, 옷가지 등을 개인별로 마련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6.1%, 민간보육시설이 73.1%, 가정보육시설이 56.1%로 차이를 보였다. 개별로 마련된 모든 물품에 영아 이름을 표기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7.3%, 민간보육시설이 79.4%, 가정보육시설이 52.6%로 차이를 보였다. 영아의 하루일과를 개인별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

시설이 72.0%, 민간보육시설이 55.1%, 가정보육시설이 24.6%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교사·부모·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서도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평균 2.71점과 2.50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1.28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문항별로 보면, 효율적인 학습활동 및 계획을 위해 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협력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67.6%, 민간보육시설이 58.8%, 가정보육시설이 24.6%로 차이를 보였다. 영아발달 및 행동 평가 후에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최소 1년 1회 이상 실시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85.1%, 민간보육시설이 77.9%, 가정보육시설이 56.1%로 차이를 보였

다. 부모와의 개별 면담에서 얻어진 정보를 새로운 학습활동 계획에 참고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84.9%, 민간보육시설이 77.6%, 가정보육시설이 40.4%로 차이를 보였다. 교사가 부모에게 일일교사, 보조자, 견학, 교재·교구 제작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평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35.1%, 민간보육시설이 36.8%, 가정보육시설이 7.0%로 차이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영아에게 개별화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발달을 평가하고, 영아를 위해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력하는 작업이 가정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0〉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개별화의 준거에 대한 평가

준 거	유 형	빈 도	평 균(표준편차)	Scheffé	F 값
체계적인 평가의 계획과 실행	국공립	75	.61(.49)	a	16.34***
	민 간	68	.50(.50)	a	
	가 정	57	.16(.37)	b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국공립	75	2.21(.92)	a	14.40***
	민 간	69	2.04(.98)	a	
	가 정	57	1.33(1.02)	b	
교사·부모·지역 사회의 상호협력	국공립	74	2.72(1.20)	a	21.95***
	민 간	68	2.50(1.42)	a	
	가 정	57	1.28(1.26)	b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찰 조사를 실시하여 영아기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

램은 평가 기준의 71%의 수준을 나타내 보육활동이 전체적으로 다소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보호에

속하는 영아들의 낮잠시의 안전, 식사 및 신체 청결과 위생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아들의 바깥활동 기회가 적은 것은 보호와 감독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영아들의 신체발달을 위하여 적당한 수준의 실외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고려가 요청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다양한 교재·교구,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아 보육이 기본적인 보호에 치중하여 교육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아는 유아에 비해 타인과 주변 환경에 대해 의존적이므로 영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환경 구성이나 교육적 자극의 제공에 보다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달하며 개개인의 발달 속도와 특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영아의 발달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하며 배려하여 현재의 개별화 수준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개별적인 발달 평가, 개별 보육, 부모의 참여에 대한 시설의 인식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과정 요인인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특히 영아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인천지역 보육시설의 영아반을 관찰한 이완정·현온강의 연구(1998)에서도 지적된 점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전조작기의 영아들에게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도록 지도해 주는 일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총체적으로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영아기 보육의 수준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양과 상호작용을 제외한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 구성, 개별화

등이 낮은 수준이므로 이 영역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와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보육시설 유형별로 영아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학습환경과 개별화에서 우수하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의 질도 국공립보육시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학습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학력과 훈련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아동 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전국의 보육시설을 조사한 정기원 등의 연구(1995)에서 나타난 경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같은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정기원 등의 연구(1995)에서 민간개인시설의 질이 국공립이나 민간법인시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서울시 일부지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희정의 연구(1998)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프로그램을 유아기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조사하고 보육시설의 표본선정기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영아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장 질이 낮게 나타났으나, 많은 준거에서 다른 두 유형의 시설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외부기관의 감독과 지원의 부재, 재정 부

족, 교사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정보육시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건강과 안전, 영양, 상호작용 영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낮잠자기 영역의 청결, 영아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교사-부모간의 정보교환, 학습경험의 다양성, 영아의 적극적인 활동참여, 체계적인 평가의 계획과 실행,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부모·교사·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밝혀진 준거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보다는 지나치게 수유, 배변, 잠자기 등의 기본 욕구의 충족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화 영역에서의 매우 낮은 수준은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특히 가정보육시설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개별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의 인식 확대와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보육시설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적, 과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평가자 직접 관찰 평정 방식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수행하였으며, 피조사자 응답에 의존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통한 실태파악과 체계적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가 수행한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육의 질은 상당 부분 교사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영아 담당 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심리적 성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여 전문화시켜야 한다.

둘째, 영아 보육시설의 환경 구성의 최소 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에서는 영아가 어느 시기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깊은 주의와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세면대, 샤워기 구비 등 최소한의 건강 위생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영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교구, 설비 등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서 교육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의 최소 기준을 보육시설에 요구해야 한다. 결국 보육시설 인증제의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유지하는 정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와는 다른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내용은 인지적 발달을 자극하는 활동 외에도 자기 관리 활동, 격리에 대처하기, 다른 영아와 성인과의 새로운 애착 형성하기, 안전하고 흥미있는 환경에서의 놀이, 다양한 신체활동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유, 기저귀갈기, 안아주기 등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아울러 교사와 영아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영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영아와 효과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가 대근육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영아의 말을 확장시켜 반응해 주고, 교사와 영아, 영아와 영아간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협동적인 경험을 마련해 주며, 위험한 상

황에서만 금지하는 말을 사용하는 등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영아의 발달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영아간 상호작용에서는 아동의 주도성,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개별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래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격려라는 기본 구성 요소를 강조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식습관 지도, 배변훈련 등의 생활지도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러한 활동들은 영아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유형의 시설들과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가정보육시설의 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숙현 (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서울: 동문사.
- 국립교육평가원 (1994). 유치원 교육 평가 연구.
- 권혜진 (1996). 보육시설의 집단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기숙 (1995). 한국의 탁아 및 종일제 프로그램을 위한 발전방향.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영·유아 탁아 및 종일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교육논총 9, 1-20.
- 이순형 (199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의 타당성.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심포지움 주제발표
- 이순형 (1999a). 보육시설의 주제탐구표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 이순형 (1999b). 한국영아보육시설 평가의 준거. 열린유아교육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 이순형·이강이 (1992). 보육시설의 실태와 평가. 아동학회지, 제13권, 52-64.
- 이영·김미령 (1990).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일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 이영석. (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과 표준평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29(2), 169
- 221.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완정·현은강 (1998).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6(6), 95-108.
- 이은혜·이기숙 (1996).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 척도. 서울: 창지사.
-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영. (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라. (1995).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유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1987). 유아교육기관 평가 준거 개발 연구.
- 현은강·윤정혜·오선주·이완정 (1998). 인천광역시 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98년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실 여성정책조사연구보고서.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 연구부.
- 현은강·이완정 (1997).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5(6), 235-248.
- Abbott-Shim, M. & Sibley, A. (1987).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 GA: Quality Assist, Inc.
- Belsky, J. (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pp.83-9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Belsky, J. (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Clarke-Stewart, A. (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One more time: A rejoinder.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pp.116-12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Goelman, H. & Pence, A. R. (1987). Effects of child care,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Victoria day care research project.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89-104).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 (1989). *Family Day Care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 (1992). *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Howes, C. (1992). Child outcomes of child care programs. In Spodek, B. & Saracho, O. (eds.), *Issues in child care*(pp. 9-30).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NAEYC. (1991).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 NY: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Phillips, D. A.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1-2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Scarr, S., Eisenberg, M., & Deater-Deckard, K. (1994). Measurement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131-151.